

## 경제동화집 (전5권)

임천순 편역

한국교육개발원/A5신/각90면내외/전질 9710원

딱딱하고 어려운 경제원리를 어린이가 쉽게 이해하도록 꾸민 국내 최초의 본격 경제동화집. 조그만 마즈마섬을 배경으로, 가장 원시적인 경제활동이 복잡하고 다양한 경제활동으로 발전되는 과정을 그린 「마즈마섬의 조약돌」, 미국의 사업가 브라운씨의 사업이야기를 통해 국제통화와 환율에 대한 기본개념을 설명한 「무역이야기」, 주인공 「식빵」을 통해 하나의 제품이 완성되기까지의 전체적인 생산과정과 유통과정을 보여준 「밀에서 빵까지」, 국가경제의 상호의존적 상황을 모카왕국과 캐러웨이왕국을 배경으로 재미있게 그린 「모카왕국」 등 모두 다섯권으로 구성돼 있다.

## 어린이 구약성경

오병학 지음

예찬사/A5신/296면/2700원

어린이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과 성경에 대한 지식을 쉽고도 재미있게 익힐 수 있게끔 꾸민 이야기 성경책.

아담과 이브의 창조에서부터, 동생 아벨을 살해한 카인, 노아의 홍수를 거쳐 포로생활에 풀려난 유대인들이 고향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까지의 구약이야기 40편을 그림 및 지도와 함께 흥미롭게 수록하고 있다. 「어린이구약성경」과 함께 신약이야기 34편을 수록한 「어린이 신약성경」도 함께 출간돼, 어린이들이 성경에 수록된 갖가지 교훈들을 쉽게 이해하여 마음 속에 새겨둘 수 있게끔 했다.

## 글동산의 꿈나무

한국아동문학가협회 엮음

한도문 화사/A5신/350면/3000원

한국아동문학가협회 회원 작가들이 88년도에 발표한 작품들 중 가장 훌륭한 것들만을 스스로 선택하여 수록한 우수작품 모음.

서울로 돈벌러 간 아버지의 편지를 애타게 기다리던 나라를 위해 우체부아저씨는 밤새워 편지를 써가지고 신나게 나리네 집을 찾아왔지만, 몸이 아픈 나리가 밤새 무지개를 타고 하늘나라로 가고 말았다는 애절한 이야기 「무지개를 타고 간 아이」(강민숙) 등 37편의 동화와 「바람없는 날」(권수환) 등 동시 38편 및 동극 「봉선화꽃이 필 때」(곽영석)를 수록했다.

## 어린이는 모두 시인이다

이오덕 지음

지식산업사/A5신/208면/2300원

아동문학가 이오덕씨가 안내한 재미있는 시쓰기 교실.

저자는 시는 누구든지 쓸 수 있으며 어린이는 모두 시인이라고 말한다. 어린이 누구나 시인이 될 수 있는 것은 참으로 곱고 부드러운 마음, 사람이 본래 가지고 있던 마음을 가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저자는 말재주를 부리지 않고 슬픔과 웃음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참다운 시를 쓰는 방법을 친절하게 안내하고 있다. 「어린이의 말은 시다」 「어린이의 삶은 시다」 「어른도 어린이와 함께」 등 모두 3부로 나누어서, 자신의 삶에서 우러난 감동을 자연스럽게 정확하게 시로 표현하는 방법을 소개했다.



## 팔아버린 팀의 웃음 (상·하)

제임스 크레스 지음 / 차경아 옮김

범조사/A5신/각 160면내외/각2000원

가난한 소년 팀은 아버지의 장례식이 있던 일요일에 거리를 정처없이 헤매던 끝에 일요일이면 아버지와 함께 가곤 했던 경마장을 찾아 간다. 이곳에서 경마구경을 하던 중 팀은 체크무늬 양복을 입은 한 말라랭이 신사를 만나게 되고, 그 뒤로 일요일만 되면 경마장을 찾는 습관이 생긴다. 어느날 팀은 그 체크무늬 양복 신사와 기묘한 계약을 맺게 되는데, 어떤 내기에서든 이기는 능력을 얻는 대신 자기의 웃음을 그에게 팔아버리고 만다. 그러나 세계에서 가장 큰 부자가 된 팀은 끝내 웃음을 잃은 삶이 얼마나 비참한가를 깨닫고, 웃음을 되찾기 위해 갖가지 모험의 세계로 뛰어들다. 독일 청소년문고상 및 안텔센 문학상 수상작.

## 유령선

이인석 엮음

학생과학문고 편찬회/A5신/162면/1500원

토성의 제2위성 엔게라도우스에 있는 태양계 요새기지. 지구에서 14억3천만 킬로미터나 떨어진 이곳은 우주선으로도 3개월이나 걸리는 머나먼 곳이다.

기지에서 근무하고 있는 젊은 전파천문학자 둘 큐르비는, 카시오페이아 자리의 전파별 A의 전파에 또 하나의 다른 전파가 겹쳐 있다는 사실을 알아내고, 5명의 대원과 안테나 개 메도우서와 함께 소형우주선 스틱스호를 타고 탐험을 떠나게 된다. 레이다 스크린을 보고 있던 큐르비는 스크린에서 조그만 물체를 발견한 뒤 직접 정체를 알아보기 위해 우주선 밖으로 나가는데, 그것은 신비로운 유령선이었다.

우주에 대한 상상력과 갖가지 과학지식을 동시에 습득할 수 있도록 꾸민 과학동화.

## '88금메달 드라마

이영준 지음

태양사/A5신/294면/2800원

88년 서울올림픽 메달리스트들의 시련과 극복을 그린 실화. 금메달을 딴 12종목과 은메달 1종목의 주인공들이 영광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겪어야만 했던 피땀어린 노력과 좌절을 생생하게 소개하고 있다.

한국의 타잔으로 불리는 김광선(복싱), 날쌔 제비라는 별명의 김재엽(유도), 똑심의 사나이 김영남(레슬링), 끈기와 집념의 사나이 유남규(탁구), 88꿈나무-똑순이 김수녕(양궁) 등의 어린 시절과 강도높은 훈련과정, 부모님의 사랑, 역경 속에서도 꿈과 용기를 잃지 않았던 그들의 삶을 보여줌으로써 어린이들에게 교훈을 전하고자 했다. 저자는 MBC-TV 「인형극장」의 극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아동문학가.

## 벤허

L. 윌리스 원작/배희길 글·그림

성바오로 출판사/A5신/302면/2700원

로마인 멧살라와 유대인 벤허는 다정한 친구 사이로, 벤허는 5년만에 사령관이 되어 돌아온 멧살라를 반갑게 맞이 하였으나 멧살라는 벤허의 힘을 빌려 큰 공을 세우려 한다. 그러나 벤허가 이에 응하지 않자 멧살라는 교묘한 수단을 이용해 벤허에게 중한 벌을 내린다. 제독 에리우스의 배를 짓는 노예가 된 벤허. 언제나 하느님의 도움을 청하던 벤허는 어느날 페니키아 해적선의 공격을 받아 싸우던 중 에리우스를 구출하게 되고, 에리우스는 자기 목숨을 구해준 벤허를 양아들로 삼아 자유를 되찾아 준다. 고향으로 돌아온 벤허는 멧살라에 대한 복수를 결심하게 되고...

명작 「벤허」를 어린이들이 재미있게 읽을 수 있도록 만화로 재구성했다.

## 떨뚜기의 비밀

이기창, 심상우 지음

대교출판/A5신/142면/2000원

생각하면서 읽는 그림동화. 이책에 실린 30편의 이야기는 모두 짙막한 이야기들이지만 그 대신 많은 것을 그림으로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짧은 이야기와 그림들을 읽고 봄으로써 어린이들이 생각하는 태도를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게끔 배려한 점이 특징이다.

“떨리뛰기 위해서는 그만큼 뒤로 물러나야 한다”는 교훈을 담은 「떨뚜기의 비밀」, 시기보다는 사랑, 경쟁보다는 협력할 때 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교훈을 주는 「철학자 창이」, 자신의 허물은 모르고 남의 허물만 들추어낸 아기새우 이야기 「새우와 잠」 등을 수록했다. 최준식 그림.

## 꼬르니의 영감의 비밀

알프스 도테 지음/정봉구 옮김

범우사/A5/200면/2000원

술밭 너머 언덕의 풍차방앗간을 배경으로 그려낸 알프스 도테의 시정 넘치는 따뜻하고 우아한 문장, 생동감 넘치는 이야기들을 수록했다. 도테의 대표적인 단편 「마지막 수업」이 수록된 「월요일이야기」와 「별」이 수록된 「풍차 방앗간으로부터의 편지」에서 대표적인 단편들만을 선별하여 실었다.

꼬마간첩, 나룻배, 보케르의 합승마차, 꼬르니의 영감의 비밀, 스강씨의 염소, 교황의 노새, 황금두뇌를 가진 사나이 등 남프랑스의 신선한 자연미와 섬세한 감성을 담고 있는 작품 18편을 실었다. 「범우픽닉스문고」 열번째권.

## 병사와 손거울

어린이독서문화회 엮음

대일출판사/A5신/268면/2500원

어린이들의 글짓기교육을 위한 책. 어린이, 어머니, 선생님 그리고 아동문학가들의 글을 다양하게 수록하여, 좋은 글이란 어떤 것이며 어떻게 써야 하는가를 친절하게 안내했다.

어린이들이 쓴 동시 「어머니」 「아버지」 「가을하늘」을 비롯해 논설문·견학기록문·연구보고서·독서감상문을 수록했고, 어머니들이 쓴 동화 「그리움꽃 민들레」 「구슬이가 가져온 행복」 등을 실었다.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나라」 「공주와 숫장수」 「병사와 손거울」 등 아동문학가들의 작품을 수록하고 해설했으며, 지도교사와 어머니를 위한 독서 및 글짓기교육을 살피는 등 다양하게 꾸몄다.

## 돌하르방

박재형 지음

아동문예사/A5신/194면/2200원

욕심꾸러기 염소아저씨가 운영하는 문방구는 토끼아줌마가 문방구를 열기 전까지만 해도 장사가 잘 되었다. 모두들 학용품을 비싸게 파는 염소아저씨네보다는 항상 친절하고 값도 싼 토끼아줌마네로 몰려가기 때문이다. 그러자 염소아저씨는 아이들을 다시 불러 모으기 위해 갖가지 장난감총을 팔기 시작하는데, 이때부터 아이들은 너도나도 총을 사서는 전쟁놀이에만 몰두하고 갈수록 난폭해져간다. 그래도 아랑곳하지 않고 장난감총을 팔아 돈을 번 염소아저씨네에 드디어 권총을 든 강도가 들어오는데...

「염소아저씨는 왜 울었을까요?」 등 창작동화 15편을 수록했다.



## 사랑스런 개구장이

아스트리드 린드그렌 지음/편집부 엮음

글수레/A5신/236면/2500원

푸른 눈에 금발머리인 미셀은, 여자하인 리나의 말처럼 ‘직접 무슨 일을 저지르지 않더라도 옆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말썹이 생기게 만드는 아이’이다. 쇠고기 스프단지에 머리를 집어넣고 바닥을 훑아 먹던 미셀의 머리가 빠지지 않아 소동을 부리던 끝에 결국에는 아버지가 아끼던 스프단지를 깨뜨리는 등, 그의 주변은 항상 갖가지 말썹들로 조용할 날이 없다.

그러나 미셀은 가족이나 이웃이 머리를 설레설레 흔드는 그런 말썹장이만은 아니다. 물론 가끔 본의아니게 엉뚱한 사건을 일으키기도 하지만 사랑스런 개구장이기 때문이다. 천사개구장이 미셀의 기상천외한 장난과 용기를 그린 스웨덴의 여류작가 린드그렌의 장편 동화.

## 생각굴리기

한국철학동화연구회 엮음

관문서관/A5신/234면/2500원

국민학교 저학년 어린이들을 위한 철학동화. 「환경적응」 편.

미국 아동철학개발원에서 개발한 국민학교 철학교육용 교재 「ELFIE」를 바탕으로 국내 현직교사들이 우리의 실정에 알맞게 새로 엮은 장편철학동화다.

이책의 주인공 애라는 수업시간에 제대로 말도 못하는 부끄럼쟁이지만, 주위에서 일어나는 여러가지 일들에 대해 끊임없이 주의를 기울이며 꼼꼼히 생각해보는 습관을 갖고 있다. 너무 수줍어서 남 앞에 나서기를 꺼리던 애라가 학교생활을 통해 자신을 얻고 용기를 갖게 되는 과정을 그림으로써 어린이들이 학교라는 단층생활에 자연스럽게 적응해가는 길을 제시했다.

## 하늘을 나는 집

김병규 지음

예림당/A5신/108면/2500원

풍선공장을 겨우 꾸려가고 있는 허사장은 얼마 전부터 집 잃은 아이를 여러 데려다 보살피고 있었다. 허사장은 집 잃은 아이가 들어올 때마다, 바람이 빠지지 않도록 특별히 만든 풍선에 아이 이름을 큼직하게 써서는 처마 끝에 매달아 하늘 높이 띄웠다. 풍선을 보고 아이를 찾으러 오는 경우도 더러 있었지만 풍선은 나날이 늘어만 갔다. 사람들이 땅만 내려다보며 다녔기 때문에 풍선을 잘 발견하지 못했던 것이다. 어느 추운 겨울날, 어린 소녀가 허사장 집에 찾아와 백개짜 풍선을 매다는 순간 집이 기우뚱하며 하늘로 둥둥 떠오르고, 비로소 온 마을사람들이 하늘에 떠 있는 집을 바라보게 된다는 「하늘을 나는 집」 등 8편의 동화를 그림과 함께 수록했다.

## 우리집 앞집 옆집

어린이교육연구회 엮음

현암사/A5신/242면/2300원

오늘을 사는 어린이들은 자신의 가정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과 이웃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 서울시내 국민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직접 조사한 내용을 수록한 이책은, 이웃을 향한 어린이들의 따뜻한 마음, 솔직하고 순수한 생각들과 주장들을 잘 보여주고 있다.

어린이들이 방과후의 시간을 보내는 놀이터와 오락실에 대한 생각, 부모님을 따라 시장과 백화점·극장 등에 가보았을 때의 느낌, 우리동네 이웃·경찰관아저씨·장사하는 아저씨들에 대한 생각, 이웃이 싫어질 때 등 어린이들의 순수한 시각에서 본 갖가지 이야기들이 실려 있다. 「주제가 있는 어린이 클모음」 세번째. 제4권 「우리도 알고 있어요!」도 함께 출간됐다.